

채권으로 돈의 흐름을 읽어라

- 채권과 경기





제가 요즘 삼촌한테
왔다갔다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제 말은 통
믿질 않으시잖아요.

그럴 만도 하지 않겠냐?
어디 망해먹은 게
한두 번이어야지.

지지로!

삼촌도 참…

이런 녀석을
어떻게 믿겠냐?

사랑하는 조카야,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려던 것이냐?

이 녀석이 도대체 채권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목돈으로 안정되게 투자를
하려면 뭐니뭐니해도 채권
아니겠어요?

허허, 글쎄요.

아버지, 채권에는
단기채와 장기채가
있는데요, 단기채는….

아이고,
시끄러워.

네가 간단하게 말해봐라.
이 녀석에게 맡겨도 좋을지, 아닌지.

흠… 그건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좋아. 그렇다면 내가
테스트를 하나 하지.

어떤 테스트요?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축의금을 갖고
뭘 하든지 아무도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뭐…
그 반대겠지.

흠, 좋아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잘
들어보고 대답을
해라.

이거야 원, 무슨
수능시험도 아니고….



만약에 단기채의 금리와
장기채의 금리가 비슷하다면,
아니 오히려 장기채의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번에는 단기채 금리는 낮은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는데, 장기채 금리는 점점
높아지는 경우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
생각한다고 모르는 게
금방 떠오르니?





채권이라는 건 말이야. 금리와 경기를 예측해서 사고파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현재의 금리와 경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금리와 경기를 잘 짚어내야 한단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쯧쯧, 저런 생각으로 어떻게 채권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원.



채권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야.



헉, 이러면 안 되는데….



어허허, 금리가
내려가야지,
그럼.

왜요?

에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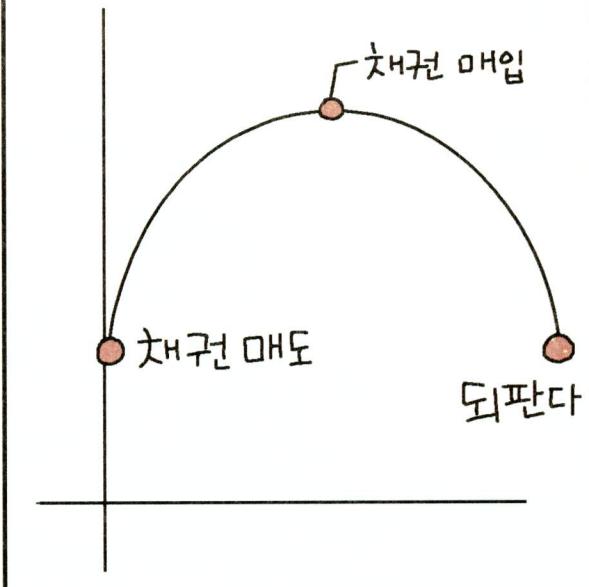
금리가 내리면
이익을 보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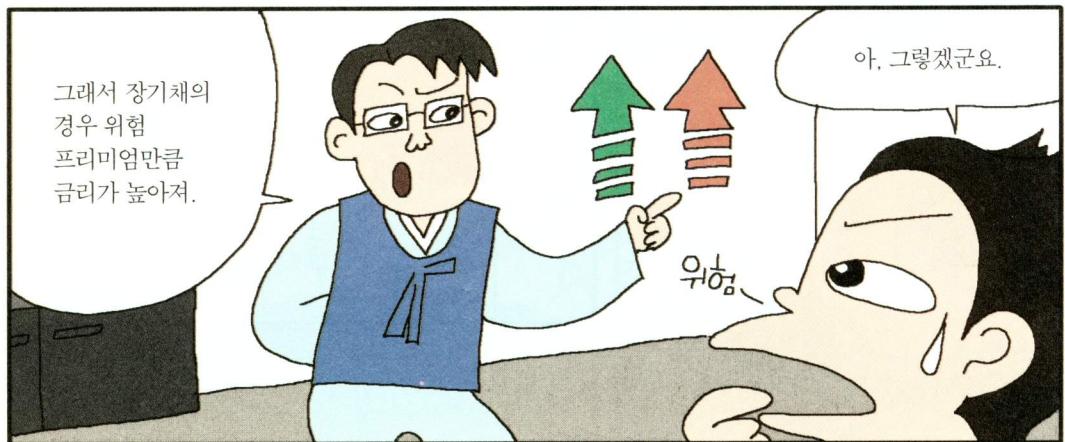
왜냐고 묻다니…
너 저번에 내가 한 얘기를
또 컷등으로 흘려버렸구나.

채권이라는 건 말이야
시중금리보다 약간 비싼
고정이자율로 산 것이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산 다음에
시중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 - **채권 매도**
금리가 완전히 올라간 지점 - **채권 매입**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지점 - **되판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문제로 냈던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 케이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말이야.

음….



장기채의 금리가 단기채와
비슷하거나 더 낮아지다면,
현재의 경기상황보다 미래의
경기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경기상황



그리고 장기채의 금리가
높아진다면 그 반대고요.



이렇게 장기채와 단기채의 금리를 서로 비교해서 나온 차이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



뭐가?

이제 제가 축의금으로
채권 운용을 해도
되겠죠?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뭐가 또 있어요?

형수님이
재 가졌을 때
뭐 드셨대요?

왜?



아니. 뭘 드셨길래 이렇게 성격 급한 애를
낳으셨대요? 그걸 연구해서 발표하면
세계적인 논문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게 나도 궁금하구나.
도대체 네 형수가 나 모르게
뭘 먹었는지.

내가 뭘 어쨌다고.

또 알아야 할 게 뭔지
그 이야기나 좀 해주세요.

신용 스프레드?
그건 또 뭘 스프레드래?

툴툴거리지 말고
잘 들어.

그건 바로 신용
스프레드라는 거야.

내가 전에 채권에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냐?

음....

국공채요, 국공채!
그거 맞죠?

뭐, 절반은 맞았네.
채권에는 회사채와
국공채가 있지.

그중에서도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신용 스프레드, 회사…

아, 알겠다. 회사의 신용도를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얏호! 맞혔다!

겨우 그거 하나
맞히고 참 좋기도
하겠다.



우리는 채무 이행 능력이 없어.



이렇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대해
시장이 위험 프리미엄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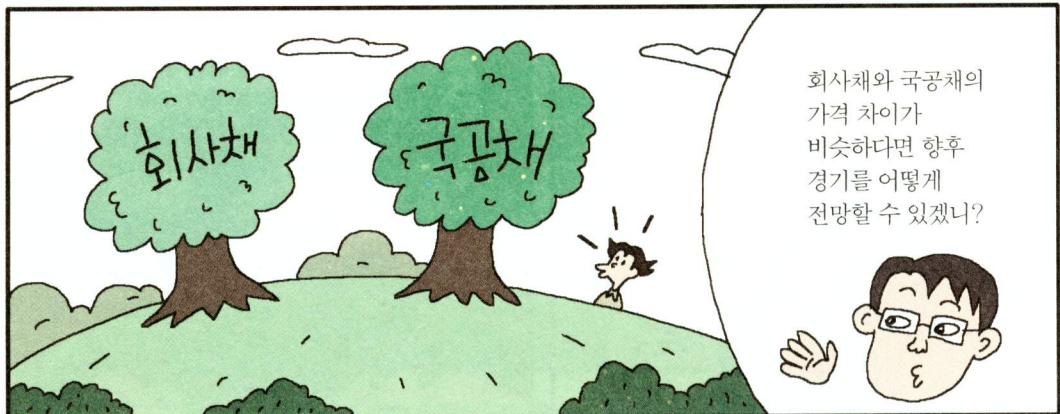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만기가 동일한 회사채와 국공채 사이의
금리 차이를 알아봐야 하는 거지.
이해가 되니?



자, 여기서
문제 하나 풀자.

아, 또 문제를…
너무하세요.



그럼 저 이제 축의금으로 투자해도 되는 거죠?

영 못 미더운데….

저도요.

아니, 왜들
이려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문제도 막
맞히고.

막 맞힌 건 아니지.
어쩌다 한두 개 맞힌 거지.

흥!

그래도….

사랑하는 조카야,
너무 실망하지는 마.

어떻게 실망을
안 해요?

네가 지금 알아야 할
건 축의금을
네 맘대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거든.

홱

하하





투자하기 전 채권의 동향을 살펴라

